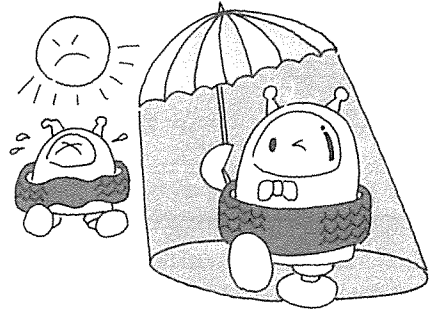


타이어 안전사용 캠페인 12

타이어를
올바로 취급하여
사고를 방지하자.

타이어의 보관과 취급

타이어는 올바른 상태로 보관하고 정확히 장착 사용하여야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. 대수롭지 않은 부주의나 방심으로 타이어의 손상을 가져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점검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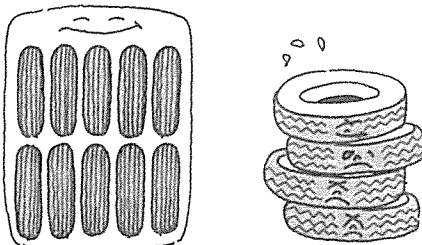
1 타이어의 올바른 보관방법

- ① 타이어의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들어 있는 물은 제거해야 한다.
 - 물이 들어 있는 채로 장기간 방치하면 타이어 사고의 원인(코드절단, 박리)이 될 수 있고, 림에 녹이 발생되어 위험하다.
- ② 금속류나 유리조각이 있는 곳은 보관장소로 적합하지 않다.
 - 타이어 내부에 이물이 들어가게 되면 튜브평크나 타이어 내부에 손상을 입혀 위험하다.
- ③ 직사광선을 직접 받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.
 - 직사광선은 고무의 노화를 촉진시킨다.
- ④ 기름이나 전기난로, 스토브 등이 있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.
 - 고무를 변질시켜 노화의 원인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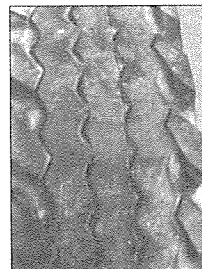
2 림 조립시의 점검과 주의사항

- 타이어와 튜브 등의 각 부분을 점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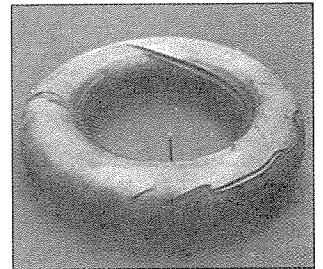
	사용해서는 안되는 것
타이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코드층까지 도달한 외상, 고무갈라짐이 있는 것 · 과마모 또는 이상마모가 심한 것 · 박리되었거나 코드 절상된 것 · 비드부에 손상이 있는 것 · 못이나 이물에 찔린 것
튜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폭이 신폼때보다 10% 이상 성장된 것 · 상처나 갈라진 것 또는 겹친자국이 있는 것 · 밸브에 이상이 있는 것
플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처나 갈라진 것 또는 겹친자국이 있는 것
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변형, 손상, 균열이 있는 것



- ※ 타이어의 보관은 실내가 원칙이나 부득이 실외에 보관할 때는 시트를 덮어써 직사광선이나 빗물이 타이어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.
- ※ 타이어는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. 옆으로 누워서 쌓아두면 타이어가 변형되어 림조립이 곤란하거나 이상진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.



▲ 코드층까지 도달한 고무 갈라짐.



▲ 겹친 자국이 있는 튜브

(宋永琦/大韓타이어工業協會 技術部 次長)